기 고

정 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코로나19로 되돌아보는 '우리시대의 관성'

물리학에서 관성은 외력이 없는 한 물체가 하던 운동을 계속하려는 성질을 의미한다. 특정 속도로 움직이고 있던 물체는 계속 그 속도로 움직이고, 가만히 정지해 있던 물체는 그대로 정지해 있고자 하는 것이 물체의 기본적인 성질이다. 이러한 물체에 외력이 가해지면 원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관성에 의한 저항이 생기게 된다.

이는 자연이 안정적인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과도 연결된다. 열역학 제1법칙을 통해 보면 자연에서의 자발적인 반응은 에너지가 낮은 안정적인 상태로 가기 위해 일어난다.

물체의 입장에서 보면 원래 가지고 있던 운동상태가 가장 안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관성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자연도 외부 요인으로 변화가 생기면 자정작용을 통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본래 유지하던 삶에 적응되면 그 상태가 가장 안정적이고 편하기 때문에 변화가 생기는 걸 싫어한다. 변화가 생기면 그 상황에 다시 적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 저항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일상이 바뀌어버린 지금, 본래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바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본래의 일상은 우리가 이미 적응했던 안정적이고 편한 삶이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는 우리에게 불편함과 추가적인 에너지 소모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살펴볼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변화 없는 안정적이고 편한 삶이 무조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이다. 자연은 안정적인 상태를 추구하지만, 열역학 제2법칙에 따라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발적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외부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해서 원래 상태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패하고 변질되게 된다.

즉,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에너지 공급이 없어져 생명 활동이 멈추면 생물은 부패하고 썩게 되는 원리와 같다.

생명 유지 이상의 성장을 위해서는 당연히 더 많은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안정적인 에너지 상태를 추구하는 자연에서 자체적으로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공급할 확률은 낮으므로, 성장을 위해서는 외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다.

코로나19가 성장을 위한 변화 요인이 될 것인지는 우리가 이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말이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이 변화가 생긴 원인에 대해서이다. 코로나19는 기후변화로 인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 파괴로 동물매개 전염병이 인간에게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은 자연 안에서 살면서 자연이 주는 자원을 가지고 생존과 번영을 위한 경제활동을 해 왔다.

몇 차례에 걸친 산업혁명을 경험하면서 인간은 석탄, 석유 등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 생활의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며 현재의 문명을 이룩했지만, 그로 인한 자연 생태계 파괴가 인간생존에 위협을 주는 결과를 낳는다는 건 그로부터 백 년이 훨씬 지난 후에서야 알게 되었다.

이제는 기후변화가 인간이 얻은 풍요로움과 편리함에 대한 대가였다는 사실을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 결국, 인간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상태에 있기 위해 행해왔던 활동들로 자연에 큰 변화를 야기했고 그로 인해 인간이 되레 강제적이고 급격한 변화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자연은 자정작용을 통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야기된 변화를 복구시켜왔다. 그 노력 덕분에 우리가 기후변화와 그 위험성을 인지하는데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속도와 범위는 누구나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급격하게 빨라지고 넓어지고 있다.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 연이어 발생한 태풍 같은 기상이변 현상과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까지 신종 전염병의 발생 주기는 짧아지고 빈도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5차 평가보고서(2014)에서는 1970년부터 2011년까지 40여년간의 전 세계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1970년 이전 220년간의 누적배출량과 비슷하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의 급속한 증가로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이 1도 가까이 오른 반면, 최근에는 10년에 0.2도씩 오르고 있으며 현재 파리협정에서 약속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모두 달성한다 해도 금번 세기말에 3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자연은 얼마 가지 않아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복원력의 임계치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용수철이나 고무줄을 일정 이하의 힘으로 잡아당기면 복원력에 의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지만 탄성 한계를 넘는 힘이 가해지면 복원력을 잃고 모양이 변형되는 것처럼 자연이 감당할 수 없는 변화가 가중되면 결국 그 복원력을 잃게 되고 생태계 시스템은 붕괴할 수도 있다.

그 임계치를 과학자들은 평균기온 2도 상승으로 보고 있다. 인류가 앞으로도 과거의 방식대로 풍요로움과 편리함만을 추구한다면 앞으로의 100년은 아무도 생존을 기약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코로나19로 인해 겪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경제침체라는 불편한 변화로 미세먼지 없이 맑고 푸른 하늘을 다시 만끽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말이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청렴과 절제의 꽃

불교를 상징하는 꽃 하면 누구나 연꽃을 연상하게 될 것이다.

연못에 핀 연꽃의 청초한 모습을 보면 세상에 이처럼 깨끗한 것도 있었구나 하고 감탄하게 된다.

연꽃은 뿌리에 영양분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러운 물에 살기를 즐기지만, 연잎은 항상 깨끗해서 더러운 곳에서도 항상 맑음을 유지한다.

후두둑 장맛비가 쏟아지던 날, 경주 안압지에서 연꽃의 아름다운 정취에 취한 적이 있다.

비 오는 날의 연잎은 쏟아지는 빗물을 통해 비움을 실천하고, 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 만큼 채워졌을 때 미련 없이 비워냈다.

가득 차는 물방울을 연신 비워내는 연잎을 보면서 청초하고 깨끗한 겉모습과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궁금증이 있다.

우리는 마음속에 청렴의 꽃을 피우고 있는가?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으로 부정의 싹이 움트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궁금증 말이다.

'청렴이란 목민관이 지켜야 할 근본적인 의무이다.

모든 선의 원천이자 모든 덕의 뿌리이다.

청렴하지 않고는 목민관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염자(청렴한 자)는 청렴함을 편안히 여기고, 지자(지식이 많고 사리에 밝은 자)는 청렴함을 이롭게 여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늘 강조했던 사항이다.

이처럼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공직자가 갖춰야 하는 윤리관인 만큼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그 잎과 꽃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청결하고 고귀한 연꽃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청렴함을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올곧은 다짐을 잊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간 마음속에 청렴의 연꽃을 피울 수 있지 않을까?

김가영/여수소방서화학119구조대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5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외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앤프레스